

청정 동해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강릉

강 육
자유기고가

푸른 빛 동해와 마주한 강릉시는 예로부터 강원 영동지방의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고, 높은 산, 바다, 석호 등을 갖춘 명승지가 많아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이름이 높다. 웅대한 백두대간이 흘러내리는 동해안 중심부에 위치한 강릉시는 평저한 구릉지대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인 서쪽으로는 동대산(고도 1,434m), 대관령(고도 832m), 노추산(고도 1,322m) 등 높은 산지들이 동해 방향으로 뻗어 점점 낮아지면서 해안에 이르고, 이 산지들 사이로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 남대천, 군선강, 주수천 등의 하천들이 흐른다.

예전에 이곳으로 부임해 오면 벼슬아치고 힘준한 대관령을 넘으면서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며 또 넘어와서는 웃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강릉이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소박한 인심을 가진 살기 좋은 곳임을 이르는 말이다.

강릉시는 산촌, 농촌, 어촌 등 복합된 생

활여건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 특성 역시 복합적이며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과 많은 유·무형 문화재와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과 전통이 잘 어우러진 강원 영동지방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아 강릉시는 국제 수준의 4계절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미래 지향적인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발전을 꿈꾸고 있다.

강릉시를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이고, 시의 꽃은 해당화, 시의 나무는 소나무이다. 호랑이는 이곳의 전설에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고, 해당화는 이곳 바닷가 아무데에서나 잘 자라고, 소나무는 나라 안에서도 으뜸갈 만큼 훌륭한 숲들을 이 시 안에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시 나무인 소나무는 “김씨 많고, 최씨 많고, 소나무 많다.”는 강릉시의 ‘3다’에 들기도 한다.

이곳 토박이들은 어려서부터 호랑이에 얽힌 옛날이야기 한 가지쯤은 쉽사리 익힌